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 둔화에 10월 소비자 지출 경총 ↑
- Bloomberg: 근원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예상치보다 하회
- WSJ: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노동시장 강하다
- WSJ: 파월, 다음 달 금리 인상 낮출 채비 시사
- NYT 칼럼: 미 인플레이가 과도하게 저소득층을 해치나?

[뉴욕시]

- Bloomberg: 내년엔 전철 요금 \$2.90 될 수 있다

[에너지]

- WSJ: 난방비 올라 미국인 '더 추운 겨울' 맞아
- CNBC: 백악관, 올겨울 비상 난방과 원유 추가 비축 검토

[미국 금융]

- Bloomberg: JP 모건, "미 주식 시장, 내년 상반기에 슬럼프"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연준 '비공식 대변인' "파월, 12월 속도 조절 '분명한 신호'"
- 연합뉴스: CA "美 커브 역전 심화...10·2년, -105bp까지 확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원 해고 가장 많다
- WSJ: Dick's Sporting 등 일부 소매업체는 오히려 재고 늘려
- WSJ: 테슬라, 펩시코에 '세미 트럭' 납품...승용차 넘어 사업 확장
- CNN Business: 펩시, "이번 연말에 우유 넣은 소다 어떤가요?"
- Bloomberg: Forever 21, 메타버스에서 잘 팔린 디지털 옷, 제작해 판매
- CNBC: 델타항공, 라운지 이용 까다롭게 한다...인파 몰려 이용 불편 탓
- Bloomberg: 포드, 영국 공장에 1억 8천만불 투자... EV 부품 생산 확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Consumer Spending Jumped in October as Inflation Eased

인플레이 둔화에 10월 소비자 지출 경총 ↑

- 전반적인 인플레이 속도가 둔화되면서 미국 가계 소비가 10월에 크게 늘었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개인 소비가 9월에 비해 0.8% 늘었다. 또한 10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원 대비 6% 상승해서, 9월의 연간 상승률 6.3%보다 하락했다.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작년 동월 대비 5%로 상승해 9월 연간 상승률 5.2%보다 줄었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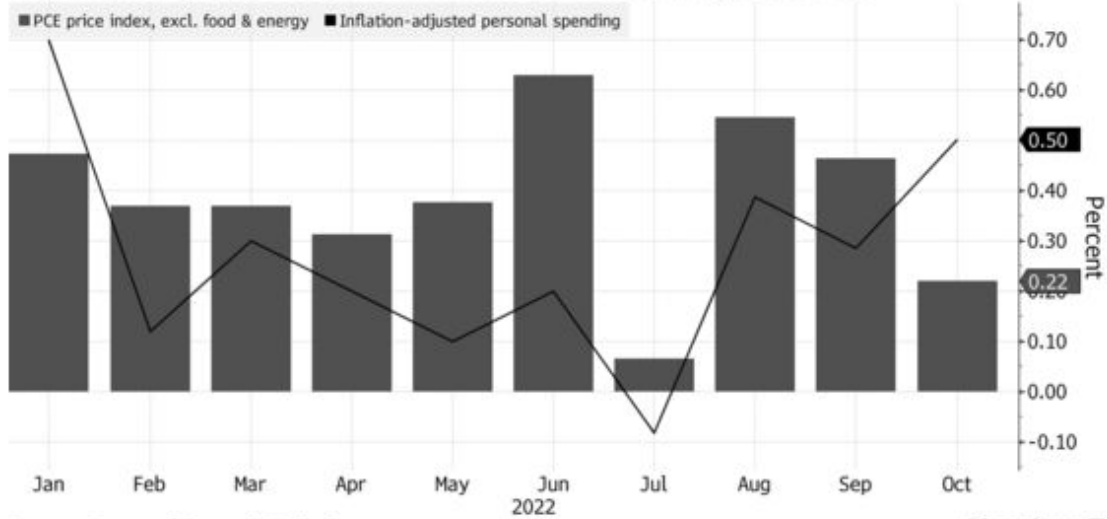
Bloomberg: US Core PCE Prices Rise by Less Than Forecast; Spending Gains

근원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예상치 보다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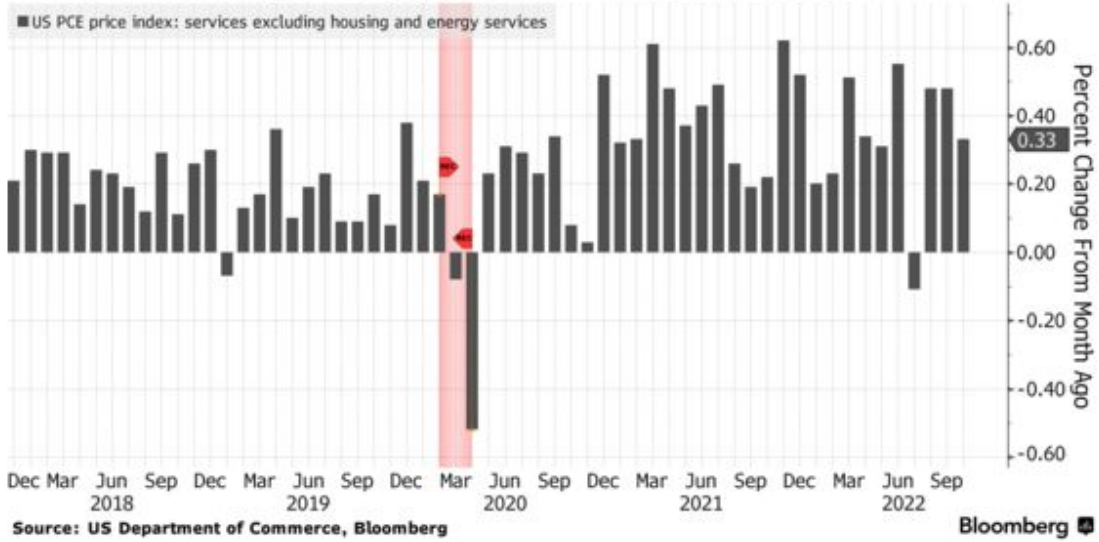
-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두 번째 적은 폭으로 늘어났고 소비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상 폭을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 식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0월과 9월을 비교한 결과 0.2% 상승,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이 같은 근원 지수는 이번 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가늠하는 정확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 정책 결정자들은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상 속도는 줄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긴축 금리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Inflation Eases

Key inflation gauges steps down in October as spending accelerates



Core Services Inflation Moderates Indicator Powell flagged as key posts smaller increase in October



Bloomberg 기사

WSJ: U.S. Jobless Claims Fell Last Week, Showing Solid Labor Market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노동시장 강하다

- 지난주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청구 건수가 1만6천건 줄어 계절 조정치로 총 22만5천건이다. 노동 시장이 견조했던 지난 2019년 주간 평균 21만8천에 가까운 수준이다.
- 일부 대기업들이 지난 수 개월간 해고와 인력 동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일자리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말한다.

WSJ 기사

WSJ: Jerome Powell Signals Fed Prepared to Slow Rate-Rise Pace in December 파월, 다음 달 금리 인상 낮출 채비 시사

- 파월 연준의장은 어제 수요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했다. 이날 분명한 신호를 보였는데 12월에 금리 인상 폭을 0.5% 포인트로 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와 맞서서 지금까지 4차례 연속 0.75% 인상 조치에서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 그는 인플레이 목표 2%를 이루려면 과열된 노동시장이 식혀질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시점이 빠르면 오늘 12월이 될 수 있

다”고 말했다.

WSJ 기사

NYT 칼럼: Does Inflation Disproportionately Hurt the Poor? By Paul Krugman

미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저소득층을 해치나?

- 언뜻 보기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부유층은 여전히 잘 살고, 저임금자는 식품 지원 기관(food bank)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통 생각한다.
-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임금 압축(wage compression)을 일으켜 경제 계층 중에 하위층 집단이 상위층 집단보다 임금이 더 늘어난다.
- 이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임금 상승 추적 지표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임금 상승세는 저소득층에서 더 빠르다는 것.
- 또한 노동 이코노미스트인 Arindrajit Dube이 팬데믹 시기 이래 기간 임금 변화를 분석할 경우 전체 노동자층의 아래쪽 40%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키는 긴축 정책은 노동시장을 부진하게 하고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심하게 저임금자들을 해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T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Subway Rides May Cost \$2.90 Next Year in Proposed Fare Hike

내년에 전철 요금 \$2.90 될 수 있다

- 뉴욕시 메트로 교통공사(MTA)는 지하철, 대중 버스, 통근 기차 노선의 요금 5.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되면 지난 2019년 인상 이후로는 처음이다.
- MTA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중교통 공사인데 현재 탑승객 수준이 팬데믹 전의 60%에 계속 머물면서 오는 2025년에 적자가 30억 달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추진안은 현재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요금 \$2.75에서 내년엔 \$2.90, 2025년에 \$3.05로 추진한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

WSJ: Heating Bills to Send Chill Through Americans' Finances**난방비 올라 미국인 '더 추운 겨울' 맞아**

- 가솔린 가격은 둔화되는데 연료비는 올라가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 미국 에너지 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겨울(10월~3월) 소매 천연가스 난방 지출이 평균 25% 늘고 전기 요금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난방유를 사용하는 가정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EIA는 이번 겨울 난방유 지출이 지난겨울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난방비는 3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난방에 사용되는 주요 연료의 종류, 서로 다른 지역 전력 시장 구조 그리고 날씨.

WSJ 기사

CNBC: White House weighs future release of emergency heating, crude oil reserves as winter nears**백악관, 올겨울 비상 난방과 원유 추가 비축 검토**

- 미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지난 수 주 동안 산업 난방 오일 재고가 약간 늘어나 과거 5년 치 평균보다 10%정도 줄어든 상태라는 것.
- 그런데 작년에 난방유 가격이 54%나 증가하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는 원유가격이 올해 초 보였던 가격으로 하락해서 재고를 비축할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즉, 행정부는 겨울이 다가오는 데다 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이 악화됨에 따라 난방과 원유 추가 비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JPMorgan Strategists See US Stocks Slumping in First Half of 2023**JP 모건, "미 주식 시장, 내년 상반기에 슬럼프"**

- JP 모건은 진단했다. 내년 상반기 미주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완만한 경기 침체와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것.

- S&P는 내년 상반기에 현 수준에서 12%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연준의 금리 정책 전환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인포: 연준 '비공식 대변인' "파월, 12월 속도 조절 '분명한 신호'"
- 연합인포: CA "美 커브 역전 심화...10·2년, -105bp까지 확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The Smallest US Businesses Are Laying Off the Most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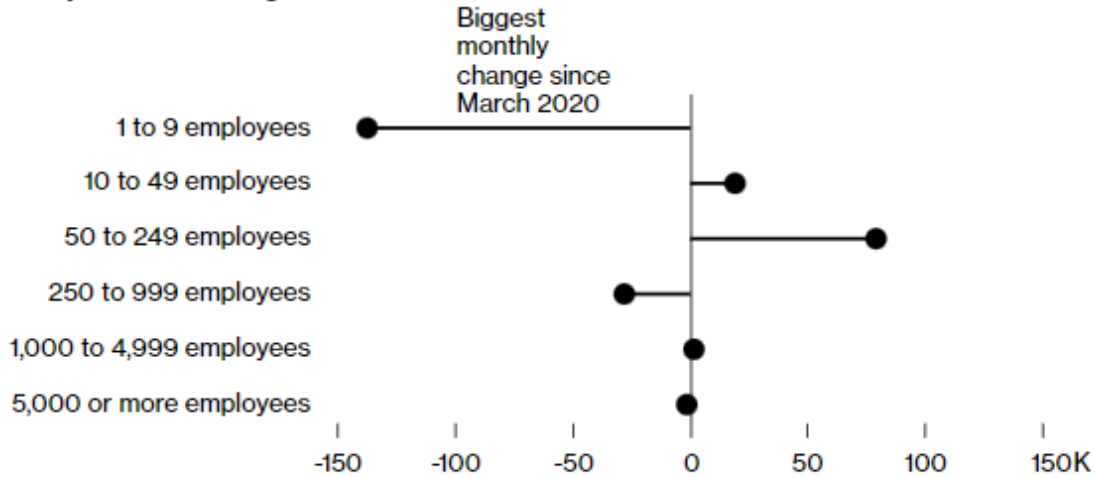
미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원 해고 가장 많다

- 연방 노동 통계국이 이번 주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에 약 30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전월 대비 13만 7천명 증가한 수치이다.
-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감원은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인재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기업들과 달리 경제 불황에 의한 소비자 수요 감소와 차입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 최근 ADP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2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2천7백 50만 명 이상이었으나, 현재 2천 5백만 명 이하로 줄었다. 대조적으로 규모가 더 큰 기업들의 범주는 모두 고용이 증가했다.

Layoffs and Discharges

Smallest firms let 137,000 more employees off in October than September

● Layoffs and discharges



Source: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Note: 1-Month Net Change, seasonally adjusted data

Bloomberg 기사

WSJ: Some Retailers Are Learning to Love Bulked-Up Inventories

Dick’s Sporting 등 일부 소매업체는 오히려 재고 늘려

- 최근 소매업체의 일반적인 현상은 과잉 재고를 줄이려 안간힘을 쓴다. 도매 주문을 취소하고 할인 소매를 실시한다. 그러나 일부 다른 회사들은 오히려 재고량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Dick’s Sporting Goods Inc., Lowe’s Cos. Walmart 등이 이런 소매업체들이다.
- 이 업체들은 작년에 공급망 사태가 회복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특히 올해 연말 시즌에 소비자 수요를 적극 이용하겠다며 재고를 늘리고 있다.
- 전문가들은 올해 소비 시장이 빨리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의류와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판매업체들은 ‘회복력이 빠른’ 현재의 소비 수요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WSJ: Tesla Set to Deliver Semi Truck to PepsiCo, Expanding Beyond Passenger Vehicles

테슬라, 펩시코에 ‘세미 트럭’ 납품...승용차 넘어 사업 확장

- 테슬라는 이번 주 목요일 첫 전기 세미 트레일러 트럭을 식음료 제조업체 펩시코에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승용차 시장을 넘어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

- 차량 앞쪽의 모터와 변속기를 제거하고 운전석을 가운데에 둔 이 전기 트럭들은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와 모데스토에 있는 공장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2023년부터 상용 전기차에 대해 최대 4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에 서명한 데에 따른 것이다.

WSJ 기사

CNN Business: Pepsi wants you to drink soda mixed with milk this holiday season

펩시, "이번 연말에 우유 넣은 소다 어떤가요?"

- 펩시는 이번 주 목요일 소비자들에게 산타 친화적 조리법(Santa-friendly concoctions)으로 #PilkandCookies(as in Pepsi plus milk) 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온라인 챌린지를 시도한다. 크리스마스까지 진행되는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에 응모할 기회가 주어진다.
- 젊은 층에서 소다와 시럽, 크림 등을 결합한 일명 "dirty soda"가 틱톡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펩시가 이를 연말 시즌 마케팅 기회로 삼은 것이다.
- 한편 틱톡에서 "#dirtysoda" 해시태그는 새로운 조합의 탄산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들의 비디오를 중심으로 70만 번 이상 언급되었다.
- 소다와 우유를 섞은 음료를 출시할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Forever 21 Bets You Want to Dress Like Your Roblox Avatar Forever 21, 메타버스에서 잘 팔린 디지털 옷을 실제 제작해 판매

- 패스트 패션 대기업 Forever 21은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된 디지털 아이템들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매장과 웹사이트에 가져오는 것을 추진한다. 가상 세계에서 디자인한 옷이 인기가 있으면 그런 의류를 실제 제작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 Forever 21의 이러한 전략은 가상 세계가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매업자들과 씨름하거나 물류 장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 Forever 21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서 판매한 블랙 비니의 제작 비용은 500달러 미만이었지만, 올해 1백 50만개 이상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McKinsey & Co.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블록스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의 연간 글로벌 소비는 2030년까지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반스, 나이키 등도 로블록스 안에서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Delta is making it harder to get into its airport lounges after they were flooded by travelers**델타항공, 공항 라운지 이용 까다롭게 한다...인파 몰려 이용 불편 탓**

- 델타항공은 내년부터 스카이 클럽 공항 라운지 입장을 위한 가격과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누구나 회원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스카이 마일스 고객 우대 프로그램 회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는 신용카드 혜택과 여행 스타일 변화 등으로 라운지 입장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공항 라운지에 긴 줄이 이어지는 등 여행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한편 델타항공은 아메리칸 항공과의 제휴를 통해 존 F. 케네디 공항에 대형 공동 라운지를 새로 여는 등 여행객을 수용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CNBC 기사

Bloomberg: Ford Invests £150 Million to Boost EV Parts Output From UK Plant**포드, 영국 공장에 1억 8천만불 투자... EV 부품 생산 확대**

- 포드자동차는 이번 주 목요일 영국에서의 전기차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해 약 1억 5천만 파운드(약 1억 8천1백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발표했다.
- 포드는 이번 투자로 영국 Halewood 공장의 변속기 생산 능력이 70% 증가해 연간 42만대의 EV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수년간의 브렉시트 여파, 팬데믹, 부품 부족에 시달리는 영국 자동차 업계에 한 줄기 빛이 된 것.
- 한편 영국 자동차 산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BMW AG는 최근 전기 미니 해치백의 생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EV 배터리 제조업체 Britishvolt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조절"...**

글로벌 증시 '파월 랠리'

이달 빅스텝 기정사실화

수요 줄어 물가상승 속도 느려져
"Fed 동료 과도한 긴축 원치 않아"
임금상승률 높아 아직 갈길 멀다
성급한 '피벗' 기대엔 선 그어
최종금리 높아질 가능성보다
속도조절 주목 ... 나스닥 4% 급등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30일(현지시간)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쏟아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하자 글로벌 증시는 급등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